



조팝나무 / *Spiraea prunifolia* f. *simpliciflora* Nakai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조팝나무속 |
| 과국명 | 장미과 |

| | |
|-------------|---|
| <p>과명</p> | <p>Rosaceae</p> |
| <p>일반특징</p> | <p>요약설명 : 장미과 낙엽 활엽 관목으로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자란다. 중국 중부에서부터 남부까지 분포한다. 분포지역 : 중국 중부 ~ 남부에 분포; 함경남북도를 제외한 전국 분포. 형태 : 낙엽 활엽 관목. 크기 : 높이 1.5 ~ 2m. 꽃색 : 백색 개화기 : 5월, 4월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 또는 긴 타원 모양이다. 침두이고 밑부분이 좁고 뾰족한 모양이다. 가장자리에 작은 톱니가 발달했으며 양면에 털이 없다. 꽃은 우산모양꽃차례로 윗부분의 짧은 가지에서 4~6개의 꽃이 달린다. 4월 말~5월 말에 핀다. 작은 꽃대는 털이 없다. 꽃받침조각은 5개이고 침두이며 안쪽에 솜털이 있다. 꽃잎은 5개이고 하얀색이며 거꿀달걀모양 또는 타원 모양이다. 암술대는 수술보다 짧다. 꽃이 핀 모양이 튀긴 좁쌀을 붙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팝나무(조밥나무)라고 한다. 열매는 골돌과고 털이 없다. 8월 말~10월 초에 익는다. 줄기는 밤색이며 모가 진 선이 있고 윤기가 난다. 밑에서 많은 줄기가 나와 큰 포기를 이루며 곧게 자란다. 주로 논둑, 밭의 가장자리, 숲의 가장자리, 산기슭 및 산기슭의 양지, 돌밭 등에서 잘 자란다. 다소 습도가 높은 곳이 좋다. 땅은 적당히 수분을 머금고 기름지며, 비교적 진흙이 적게 섞인 보드라운 흙이 적합하다. 씨와 껍질이, 포기나누기 등으로 번식한다. 우리나라의 여러 조팝나무 중 가장 전통적인 것이다. 꽃잎이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본산으로서 관상용으로 심고 있다.</p> |